

에이핑크,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데뷔 6년차 변화·성장 담은 앨범 '핑크 레볼루션' 발표... 마냥 청순하고 상큼했던 모습 탈피

청순함의 대명사 그룹 에이핑크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난 28일 발표한 세 번째 정규앨범 '핑크 레볼루션(PINK REVOLUTION)'을 통해 서다.

2011년 '몰라요로 아무것도 모른다면 수줍은 설렘을 전하던 어린 소녀들이 이제는 내가 설렘 수 있게 날 꼭 알아달라'는 성숙한 여인이 됐다.

"매번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데뷔 6년차인 만큼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초롱)

'핑크 레볼루션'은 에이핑크의 지난 6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담은 앨범이다.

마냥 청순하고 상큼했던 에이핑크의 모습에서 탈피해 힙합 R&B, 댄스 웨스턴 팝 발라드,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울렀다.

"좋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늘 그랬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음악적인 성숙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전에는 귀에 속 속 박히는 후크송을 했다면 이번에는 멜로디 자체가 예쁘고 좋은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음악을 하는 그룹이 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은지)

타이틀 곡 '내가 설렘 수 있게'는 인기 작곡가 블랙아이드필름과 에이핑크가 처음 호흡을 맞춘 결과물이다.

힙합 리듬이 가미된 미디어 템포의 R&B 댄스곡으로 연인을 향한 마음을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했다.

음악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청순한 이미지는 지금까지 에이핑크의 노선에서 크게



지난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걸그룹 에이핑크(Apink) 정규 3집 앨범 '핑크 레볼루션(Pink Revolution)' 쇼케이스에서 에이핑크 멤버들이 타이틀곡 '내가 설렘 수 있게'를 선보이고 있다.

벗어나지 않는다.

"섹시 콘셉트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의 느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고르다보니 이런 색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주시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하영)

"데뷔 초부터 그 나이에 잘 할 수 있고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왔고요. 조금씩 나이가 들

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요."(초롱)

멤버들의 전반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앨범이기도 하다. 의상과 뮤직비디오, 재킷 사진, 콘셉트 뿐 아니라 멤버 박초롱은 '네가 손짓해주면'에 작사가로 참여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낼 때마다, 저희의 생각과 의견을 더 많이 내고 그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고

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초롱)

이 외에도 앨범에는 '오 예스(Oh Yes)' '붐 파워 러브(Boom Pow Love)' '페어리(Fairy)' '드러머 보이(Drummer Boy)' '투 어스(To Us)' '딩 둥(Ding Dong)' '캐치 미(Catch Me)' '네가 손짓해주면' 등 모두 아홉 곡이 실렸다.

/뉴시스



전북현대 로페즈,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MVP

2년 연속 두자리수 득점에 성공한 로페즈(26·전북)가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로페즈는 2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2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렸다. 상금은 100만원.

로페즈는 지난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경기에서 전반 7분 호쾌한 중거리슛을 터뜨리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10호골 고지에 오른 로페즈는 2년 연속 두자리수 득점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11골1도움을 올린 로페즈는 올 시즌에도 10골8도움을 기록 중이다.

한편 4-4-2 전형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조나프(수원)과 마르셀로(제주)가 이름을 올렸다.

진성욱(인천), 김보경(전북), 라자르(포항), 로페즈(전북)가 미드필더진을 형성했고, 포백라인에는 홍철(수원 삼성), 김광석(포항), 권한진(제주), 고광민(서울)이 뽑혔다.

골키퍼 장갑은 수원FC의 이창근에게 돌아갔다.

/김민근기자

사이니 10월5일 정규5집 '원 오브 원'으로 컴백

그룹 사이니가 다음 달 5일 다섯 번째 정규앨범 '원 오브 원(1 of 1)'을 발매하고 컴백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K팝 리더로 자리 잡은 사이니의 독보적인 음악 색을 민낯할 수 있는 곡으로 구성된 정규 앨범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정규 4집 '오드(Odd)'로 국내 음원·음반·방송차트 뿐 아니라 유희열과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등 각종 차트 정상을 차지한 만큼 새 앨범으로 보여줄 성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사이니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오전 0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니스 픽!(SHNee's Pick!)' 노래 어때?'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선수단,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서 필승 결의 다짐

육상 등 47개 종목 입원 392명·선수 1,178명 등 1,570여명 출전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의 결의를 다짐했다.

결단식에는 전라북도체육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기관장들과 도체육회 임원, 고문, 자문위원단, 경기단체장 등 8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지사에서 "전북도민의

명예를 걸고 그 동안 흘린 땀과 고생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길 바란다"며 "끝까지 투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3인조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소개, 단기수여, 지사 격려사, 지도자 및 선수대표 선서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전국체전의 전북선수단 단장에

송하진 지사 총감독은 최형원 도체육회 스포츠진흥처장이 맡게 됐고 육상 등 47개 종목에 입원 392명, 선수 1,178명 등 총 1,570여명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을 하게 된다.

작년에 열린 전국체전에서 충북에 이어 종합 10위를 달성했던 전북 선수단은 올해는 한 단계 높은 종합 9위 종합점수 33,000점을 목표로 싸운다는 계획이다.

이날 결단식에 앞서 고문, 자문위원, 체육발전특별위원, 미래창조위원 등 60여명은 간담회를 통해 전북체육회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금번 전국체전 출전계획 보고를 하기도 했다.

한편, 제97회 전국체전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비롯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열리게 된다.

/김민근기자

MBC TV 새 월화드라마 '캐리어' 첫방 6.9%

MBC TV 새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극본 권음미·연출 강대선)가 순조롭게 출발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8일 방송된 '캐리어'를 끄는 여자 첫 방송 시청률은 전국 기준 6.9%다.

동시간대 방송돼 시청률 7.1%를 기록한 SBS TV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를 0.2%포인트 차이로 바짝 뒤따랐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8.8%, 7.9%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능력 있는 로펌 사무장 '차금주'로 변신한 최지우와 까칠한 언론사 대표 '함복거'로 분한 주진모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은 20.7%로 월화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